

최신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코로나19 #산불 #확진자 #북한 #우크라이나

뉴스홈 최신기사

[SNS세상] 포켓몬빵 열풍..."20·30세대 힐링 방식"

송고시간 2022-03-12 08:05



스티커, 중고거래에 고가로 등장하기도
전문가 "행복했던 과거 회상하게 해주는 수단"

(서울=연합뉴스) 진영기 인터넷기자 = "근처 편의점 10곳을 돌았는데 포켓몬빵을 한 개도 구하지 못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A씨

"어렸을 땐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151마리 모두 다 모아보려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B씨

지난달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SNS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11일 기준 인스타그램에 포켓몬빵 해시태그(#포켓몬빵)와 함께 올라온 게시물은 2만 3천여 개에 이른다.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share.gg.go.kr



포켓몬빵 품절 공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켓몬빵 구매 열풍은 20~30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포켓몬 '띠부실'(똥다 붙었다 할 수 있는 스티커) 수집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출시된 포켓몬빵의 스티커 디자인은 20~30대에게 생소한 최신 포켓몬이었

[SNS세상] 포켓몬빵 열풍..."20·30세대 힐링 방식"

복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실때
희망이되고 행복이 됩니다.



핫뉴스

구치소에서 오는 손편지...스토킹 피해
자는 공포에 떨었다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성 패트릭 데이' 앞두고 美 시카고강
초록으로 염색

"평생 집밥해주겠다"尹당선인, 이메일
로 프러포즈

에베레스트 해발 6천496m서 다과회를...기네스 신...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

러시아 안방서 스파이더맨 못본다...BAT담배도 철수

SUV에 깔린 여성...시민들이 차 들어 올려 구조

빗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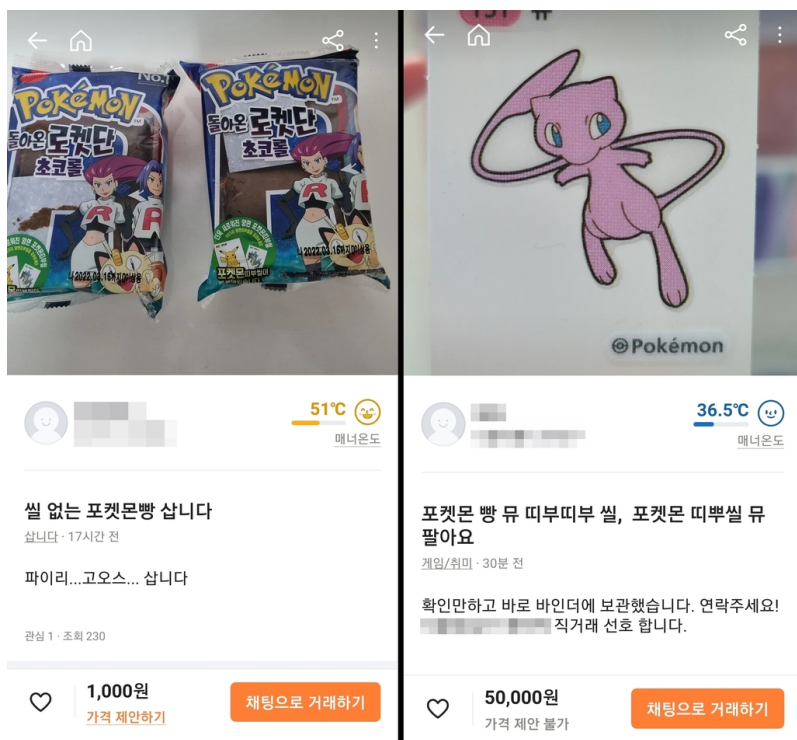
24시간 변동률 기준

<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
	비트코인	48,532,000	-0.85%
	이더리움	3,203,000	-1.48%
	리플	1,003	+9.34%



누리꾼들은 빵을 구하려 해도 재고가 없어 구할 수 없으며 물량부족을 성토했다. 일부 누리꾼은 '허니 버터칩 품질' 사건을 언급하며 인기가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포켓몬빵을 구하려 편의점 네 곳을 방문했다는 김호준(가명·28)씨는 "포켓몬 스티커를 모았던 추억이 떠올라 포켓몬빵을 샀다"며 "초코빵을 먹었는데 맛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포켓몬빵 · '띠부씰' 중고거래
[중고거래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켓몬빵 품귀현상으로 인해 포켓몬 '띠부씰'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됐다. 포켓몬 스티커는 희귀한 정도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개당 2천~4천 원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희귀 포켓몬 '뮤'와 '뮤츠'가 그려진 스티커는 5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포켓몬빵의 편의점 판매가가 1천500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빵을 맛보기 위해 스티커가 없는 빵을 산다는 구매자도 눈에 띄었다. 한 구매자는 "동네에 재고가 다 떨어졌다"면서 "스티커는 필요 없으니 빵을 먹어보고 싶다"고 구매 게시물을 올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거 포켓몬빵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며 포켓몬빵을 '20~30대가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으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고 힐링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young71@yna.co.kr

기사문의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2 08:05 송고

#포켓몬빵 #스티커 #중고거래 #포켓몬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배우 신구, 입원...연극 '라스트 세션' 내일 오영수가 대신 출연(종합)

구치소에서 오는 불편지...스토킹 피해자는 공포에 떨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동해안 산불] 8일째 진화로 지친 소방대원에 배달된 통닭 한 보따리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01:17

[영상] "평생 집밥해주겠다" 尹당선인, 이메일로 프 러포즈

뉴스

일일확진 40만명 육박...적사망 1만명..."하 루 사망 600명 우려"

윤 당선인, 첫 주말 자택서 휴식...인수위 인선 고심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가시화...경찰, 집회·교통관리 '고심'

[동해안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장 시간...2000년 191 시간 기록 깨

민주 '윤호중 비대위' 모레 공식출 범...비대위원 인선 박차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리빙톡] 터지면 사망한다?...술·담배 즐긴다면 주의!

2022-03-12

[포켓이슈] '아이를 죽이지말라'...우크라 영부인의 절규

2022-03-10

[우크라 침공] '가짜라더니'...마리우폴 산모, 폭격 이틀 만에 ...

2022-03-12

[AD] 구취가 해결된다고?? 이렇 게나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면...

momo-selection

적폐청산 동행하다 악연으로...문대통령-윤당선인 '엇갈린 ...

2022-03-10

에버랜드 SNS 설문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은 '벚꽃'

2022-03-10

[AD] 비싼 병원 대신 '이것 후' 허리통증 척추협착증 놀랍게...

호관원

경기국제보트쇼 11일 개막...3년 만에 킨텐서서 현장 개최

2022-03-10

현장 영상

03:46

[영상] 대통령 취임식 어디서 열리나...코로나로 소규모 초청 예상

02:19

[영상] 북한, 동창리 확장·풍계리 복구 정황...핵·미사일 도발 징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댓글 많은 뉴스

96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36	이재명, 감사 인사 전하며 "더 나은 변화의 길, 함께 걸어달라"(종합)
23	권성동 "여가부 폐지 공약, 시대정신 따른 尹 결단"
21	尹당선인, 기시다 日총리 통화..."한미일 한 반도 공조 강화"(종합2보)
15	북, 동창리 풍계리 금강산 영변서 도발징 후...전방위 긴장고조(종합)

뭐하고 놀까?

유튜브 채널

SNS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현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등록일자 1980.12.29 발행일자 1980.12.29 Tel. 02-398-3114

(C) Yonhapnews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